

시모무라 가이난(下村海南)과 조선 기행*

윤미란**

〈차 례〉

1. 시모무라 가이난, 조선을 오가다
2. 조선의 공업화와 위생보건 기행
3. 조선의 골프장에 매료된 일제 관료, 시모무라
4. 조선을 기행하고 쓰고 남기다

[국문초록]

시모무라 가이난(下村海南)은 위정자로서 일제의 대 조선정책에 부응하고 공업화되어 가는 부전고원과 장진강의 댐과 발전소를 답사하고, 소록도지혜의원(소록도갱생원)을 견학하고 그 의의를 담은 여러 편의 글을 남겼다. 또 대일본체육협회 회장으로서 조선과 만주의 체육 정책에도 관여하였으며, 골프를 즐겨 골프를 매개로 조선에서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의 이런 글들은 수차례의 일본 내외의 강연을 통하여 많은 일본인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그 만큼 많은 영향력이 있었다. 조선에 관한 일제 말기의 경험은 아주 작은 균열과 모순을 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일제의 조선 지배 정책과 일치하는 것에 국한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주제어] 시모무라 가이난(下村海南), 조선 경험, 공업화, 소록도, 골프, 일제 조선 정책, 균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1047).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1. 시모무라 가이난, 조선을 오가다

근대 초기 개항과 같은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일본인의 한반도 경험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또 이에 따라 자연스레 한반도에서의 경험이 드러난 텍스트도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다. 다카사키 소지(高崎隆治)의 연구에 따르면 해방 전까지 조선에 체재하였던 일본인 작가들을 비롯하여 조선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문학작품이나 기행문 등의 산문으로 남긴 일본인들은 저명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다카하마 교시(高浜虛子) 등을 포함하여 60여 명에 이르고 작품은 210편에 달한다.¹⁾ 다카사키는 조선을 전면적으로 다룬 작품들만을 연표에 넣어 수치화하였기에, 전면적으로 조선을 다루지 않았지만 조선에 관한 언급이 있는 작품까지 더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을 다룬 일본 작가들의 작품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다카하마 교시, 유이사 가쓰에(湯淺克衛) 등 조선에 체재한 경험이 있는 작가들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²⁾ 21세기 들어서는 소설 이외의 장르, 집단, 체제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 대상과 지평을 넓혀서 일본인들의 조선 체험과 분석 그리고 그것의 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연구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³⁾

1) 高崎隆治, 『文学のなかの朝鮮人像』, 倉林社, 1982, 122쪽 작품연보 참조.

2) 일본의 소설가 다카하마 교시와 그의 조선 체험이 드러난 장편소설 『조선(朝鮮)』에 관한 연구에는 유상희, 『近代日本文人の韓國人識 - 清日戰爭에서 韓日合邦까지 -』, 『일본학보』, 2000; 장남호, 『다카하마 교시(高浜虛子)의 한국관(朝鮮觀)』, 『아시아지역연구』, 2004; 와타나베 나오키, 『不氣味さの政治學 - 草創期の在日朝鮮人文學に見られる朝鮮人像について -』, 『비교한국학』, 2005; 도로코 유미, 『高浜虛子『朝鮮』- 虛子の写生文觀を中心に -』, 『일본학연구』, 2011; 황소연, 『다카하마 교시의 『조선』론 - 교정되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 『일본학연구』, 2016; 조형래, 『“허가 없는 인간”의 노동: -1900~1910년대 한일 문학에 나타난 조선인의 (임금)노동 관련 표상 및 의미 고찰-』, 『한민족문화연구』, 2018; 조형래, 『변창과 퇴락-개항 이후 한일 문학 및 회화에 나타난 서울/경성의 역사적 이미지를 간 교차와 역설에 관하여-』, 『사이(SAD)』, 2019 등이 있다.

유년시절을 일제 시기 조선에서 보낸 소설가 유이사 가쓰에에 관한 연구로는 박광현, 『유이사 가쓰에 문학에 나타난 식민2세의 조선』, 『일본학보』, 2004; 신승모, 『유이사 가쓰에(湯淺克衛) 문학에서의 ‘조선시장’과 재조일본인 2세의 정체성』, 『한림일본학』, 2016; 우정덕, 『유이사 가쓰에의 『鴨綠江』에서 형상화된 내선일체와 그 불가능성』, 『한국근대문학연구』, 2019; 오미정, 『유이사 가쓰에(湯淺克衛)의 식민지 경험의 연속-서울 아시아 작가 문학 강연회 (1962년) 참가를 전후로-』, 『일본학보』, 2019 등의 연구가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인의 한국 체험에 관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이어받으면서 확장하여 지금까지 언급된 적이 거의 없었던, 일제 시기 관료이자 저널리스트였던 시모무라 가이난(下村海南)의 조선 기행에 관한 산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각 글 속에 나타난 조선의 모습과 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모무라는 1923년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과외강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26일, 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기념강연에 초대받아 경성, 부산 등 조선의 주요 지역에서 강연을 하였다.⁴⁾ 또 1930년대부터는 이즈(伊豆), 히로시마, 교토 등 일본 각 지역에서 강연을 하는 등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경험한 조선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⁵⁾ 시모무라는 조선보다 일본 내에서 더욱 많은 강연 기회를 가졌던 만큼 일본인들에게 위정자로서 전파할 수 있고, 전파해야 하는 한국관(조선관)을 심어주는 데 일조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일본 내에서 시모무라의 조선 기행과 체험이 강연과 저서 출판 등으로 공유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시모무라의 조선관을 연구하고자 한다. 시모무라가 조선 기행을 하게 된 각각의 동기를 비롯하여 그 동기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 그리고 각각의 글 속에 담겨 있는 이면적인 의미 등을 밝힘으로써 시모무라 혹은 시모무라와 비슷한 부류의 일본인들이 형성해낸 일본의 한국학은 어떤 것이었는지 구명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일제

3) 2000년대 이후, 일본인들의 한국 체험에 관한 연구는 거의 모든 분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윤소영, 『러일전쟁 전후 일본인의 조선여행기록물에 보이는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07; 김종식, 『근대 일본내무관료의 조선경험-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를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연구』, 2009; 이하늘, 김태영, 『20세기 초 한국에서 활동한 일본인 건축가의 조직과 계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09; 서기재, 『조선 여행에 떠도는 제국』, 소명출판, 2011; 이지선, 『1930년대 일본인의 조선음악 연구 2』, 『국악 교육』, 2014; 한창범, 『1920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인 영화 배우에 관한 연구』, 『동아 연구』, 2015; 송혜경, 『식민지기 재조일본인 2세 여성의 조선 체험과 식민지주의-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를 중심으로 -』, 『일본사상』, 2018; 이현희, 『한반도 간행 일본어민간신문 문예물 연구-1920년 이전 탐정소설 장르를 중심으로 -』, 『일본학보』, 2020; 조성우, 『식민지 경성의 일본인 음악가 '임상회' 연구』, 『이화음악논집』, 2020; 이부용, 『「사사중교1911」에 나타난 금강산 방문기록 고찰』, 『문화와융합』, 2020; 유은경, 『나카라이 도스이의 「계림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 『공존의 인간학』, 2020; 이규수,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츠지(布施辰治)와 조선』, 『내일을 여는 역사』, 2020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인들의 조선 체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4) 下村海南, 『東亜の理想』, 第一書房, 1937, 336쪽.

5) 下村海南, 『持久戰時代』, 第一書房, 1940, 323쪽.

시기 일본 위정자의 한 사람인 시모무라의 조선 관련 행보를 하나의 사례로서 분석하고 나아가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하는 관제 일본인들의 한국학(조선학)을 보다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모색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시모무라 가이난이 조선땅에 발을 디디고 그에 대한 감회를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른 것은 1902년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길에 경유하게 되었던 인천에서의 경험이다. 그의 조선에 대한 첫 경험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시모무라: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련, 조선을 들르고 싶어서였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영구(營口)로 갔어요. 거기서 대련으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비자를 주지 않았어요. 2일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비자를 받지 못해 할 수 없이 지부(芝罘)로 가서 지부에서 인천으로 향했지요. 인천에 도착하자 일본어도 통하고 일본지폐도 통용되어서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⁶⁾

그는 당시 만 27세였는데, 러시아령 다롄(大連)으로 가서 육로로 조선에 왔다가 일본으로 귀국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러시아 비자가 나오지 않아 경로를 변경하여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즈푸(芝罘) 즉 지금의 엔타이(煙臺)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오게 된 것이다.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불안하고 초조했을 시모무라는 개항장으로서 형성되어 있었던 인천의 일본조계에서 일본어와 일본화폐가 통용되는 것에 불안이 해소되고 안심하게 되어 매우 “기뻐”을 것이다. 인천에서 그는 인천 자체를 느꼈다기보다는 일차적으로

6) 『조선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하는 좌담회』, 홍선영 외 역,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40 완역 <모던일본> 조선판 1940년』, 어문학사, 2009, 154쪽. 번역본에는 “저는 페이지 35년(1932) 단비사건 이후 귀향길에 조선을 경유하게 된 것이 처음입니다만”(154: 16~17)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35년은 서기 1902년이다. 단비사건(團匪事件)은 1899년 시작되어 1901년 북경의정서의 체결로 끝이 난 사건이고, 이 사건 이후라고 했으므로 1902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 좌담회 앞부분에 “제가 처음으로 조선에 간 것은 페이지 32년(1899)”(145: 1~2)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의 어디에 무슨 일로 왔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중국으로 가는 길에 조선의 어딘가를 통해서 갔을 가능성도 있으나 기모무라가 1902년의 기억을 1899년으로 잘못 말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 1902년으로 잠정 확정하였다. 향후 이 부분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확정, 보완하고자 한다.

모국과 유사한 익숙함에 우선 안도했으리라. 따라서 시모무라의 조선에 대한 첫 경험이 긍정적인 것은 그의 당시 상황이 매우 주요하게 작용한 결과이며 아울러 일본조계, 후일 일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조선에 대한 예비 체험의 결과였다고도 할 수 있겠다.

시모무라의 인천에 대한 이런 인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일관되어 나타난다. 지배자로서의 일제와 피지배자로서의 조선의 구도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그 이면에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생기는 미세한 균열과 자기모순도 내포하고 있는 텍스트도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찾아 논의하고자 한다.

2. 조선의 공업화와 위생보건 기행

1) 공업화되어 가는 조선을 보다

시모무라 가이난(1875~1957)은 와카야마현(和歌山県) 출신이며 본명은 시모무라 히로시(下村宏)이다. 1898년 도쿄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체신성(逓信省, 지금의 총무성)에 입성하였다. 1902년 벨기에에서 유학하며 각국의 우편환전저금제도를 연구하였으며 귀국 후 1913년 환전저금국장으로 환전저금제도나 간이생명보험사업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1915년 대만총독부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의 초청에 따라 민정장관이, 1919년에는 총무장관이 되었다. 사실 시모무라는 조선보다 대만을 더 많이 경험하고 연구한 사람 중 하나이다. 본인 스스로도 일제말기에 조선총독부와 손잡고 여러 사업에 참여할 때조차 자신은 조선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발언하기도 한다.

그런데 시모무라의 조선 기행은 일제시대 말기에 이르면 매우 빈번해지고 또 다양해진다.

(조선과 내지인의 감정을 -인용자) 나는 잘 모르나 요근래는 매년 방문을 했지요.⁷⁾

조선 여행은 이제 빈번한 편이 되었다. 숙박한 곳을 손으로 꼽아 봐도 함경, 강원도에서는 회령, 용기, 청진, 주을, 나남, 함흥, 원산, 온정리, 장안사가 있으며 경성 이북에는 신의주, 평양, 진남포, 꺾이포, 경성이 있고 경성 이남에는 부여, 군산, 목포, 소록도, 대구, 경주, 동래, 해운대 등이 있다.⁸⁾

일제 말기 매년 조선을 방문하고 있던 시모무라가 1940년 즈음에 숙박한 곳만 최소 22군데에 이른다. 앞 장에서 언급했던 인천과 숙박하지 않고 다녀온 곳까지 합하면 그 수가 훨씬 많을 것이다. 1912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다카하마 교시(高浜虛子)의 소설 『조선(朝鮮)』은 1911년 연재 당시 연재 중단 요청이 있었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하나 조선의 이미지를 이만큼 전면적으로 다룬 작품이 드물었기 때문에 조선에 관심을 가진 일본인들에게는 일종의 조선 입문서 같은 영향력이 있었다. 시모무라도 이 소설을 흥미롭게 읽었다는데 그래서 평양에 가기만 하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오마키차야에 꼭 간다고 다카하마와의 대화에서 말하기도 했다.⁹⁾

그러나 평양을 비롯하여 조선 관광의 명소라고 여겨지던 경주, 부여 혹은 금강산 같은 일본인들의 조선 기행 인기 코스는 물론 다양한 조선의 곳곳을 기행하였던 시모무라는 전혀 다른 맥락의 조선 기행에 관하여 역설(力說)하며 다카하마에게 추천까지 한다.¹⁰⁾ 그가 더욱 인상이 깊었던 곳은 “부전고원, 장진강 호반의 여관과 전라남도의 세토(瀨戶) 내해(內海)라고 불리며 새롭게 물길이 연결된 소록도에서의 하룻밤이었다.”¹¹⁾

7) 『조선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하는 좌담회』, 앞의 책, 153쪽.

8) 시모무라 가이난, 『조선의 여관』, 홍선영 외 역,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40 연역 <모던일본> 조선관 1940년』, 어문학사, 2009, 116쪽.

9) 『조선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하는 좌담회』, 앞의 책, 150쪽.

10) 다카하마 교시는 시모무라의 추천을 받아들여 부전고원과 장진강 댐과 발전소를 작품에 반영한 후속작을 쓰지는 않은 것 같다. 아울러 다른 일본 작가들에게도 시모무라의 추천은 그다지 매력적인 작품의 소재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시모무라가 부전고원과 장진강 호반의 여관을 추천하는 이유를 들어 보자.

이 다음에는 북선(北鮮)이 좋아요. 상당히 바뀌었거든요. 공업은 저와 분야가 다르지만 어쨌든 압록강 물을 모아 다시 그것을 거꾸로 일본해 쪽으로 떨어뜨려 동력을 만들어 냅니다. 이런 건 세계에는 유례가 없지요. 그러니 조선 사람들도 놀라겠지만 우리도 놀라는 거지요. 외국에 이러한 예가 있어서 그걸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고안해서 시작한 것이에요. 댐이 여러 개 있어서 아래쪽 댐에서 위쪽 댐으로 차례로 올려서 가장 위에 있는 댐에서 터널로 빼내고 있어요. 호반에 클럽 하우스가 있는데 인공호수가 가스미가우라(霞ヶ浦) 정도의 크기는 되지요. 그 주변은 소위 화전민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지와 달리 거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품삯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들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큰 호수인데 주변에 집도 한 채 없고 아주 이색적인 풍경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다카하마 씨가 이 지역을 여행하시게 된다면 아마도 좋은 작품 재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¹²⁾

시모무라는 조선 최초의 댐인 부전강댐과 부전강수력발전소 그리고 장진강댐과 장진강수력발전소가 세워진 북조선의 공업화에 큰 의의를 부여한다. 이는 일제의 주도 아래 세워진 댐과 발전소 그리고 이 에너지를 활용한 흥남 질소비료공장 등의 가동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식민지근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 셈이다. 어쨌서 그는 평양의 대동강, 부벽루 등의 절경과 즐거운 관광의 주요 요소인 일본식 여관이나 근대식 호텔 등의 숙박이 아니라 댐과 발전소와 그 주변의 변변찮았을 여관에 사로잡힌 것일까.

시모무라는 1915년 대만총독부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의 초청에 따라 민정장관으로, 1919년에는 총무장관으로 복무하였는데 이 대만총독부 시대에 일본의 수리기술자인 핫타 요이치(八田與一)를 지원하여 자난대천(嘉南

11) 시모무라 가이난, 『조선의 여관』, 앞의 책, 같은 곳.

12) 『조선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하는 좌담회』, 앞의 책, 151~152쪽.

大圳) 건설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30년에 완성된 댐이 우산터우(烏山頭) 댐이다. 이 댐의 건설로 일대에 대만 최대의 곡창지대가 형성되었는데 그 풍경을 시모무라가 ‘산호담(珊瑚潭)’이라 표현하며 아름다움을 칭송하였다 한다. 지금까지도 이 일대는 산호담으로 불리고 있다. 댐의 기획에서부터 건설까지 직접 참여한 핫타 요이치는 현대에까지 ‘대만 댐의 아버지’, ‘대만 농부의 아버지’로 평가받으며 우산터우댐이 핫타댐으로도 불리는가 하면 근방에 동상과 그가 거주하던 집이 보존되어 있을 정도로 대만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일제의 근대공업화의 위력을 체험한 시모무라는 같은 논리로 부전고원과 장진강 일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대가 “화전민들이 거주하는 곳”이어서 돈이 별로 안 든다고 생각하는 것, 그들도 품삯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한다든지 하는 조선총독부 위정자들의 일제의 체제 합리화에 기반한 생각들을 시모무라도 그대로 옮기고 있다. 당시 장진강 근처의 토지를 강제 매입하기 위해 장진 주민들이 토지불매동맹까지 맺었던 일, 군청 소재의 읍내가 장진호에 수몰된 일 등 댐과 발전소를 짓기 위해 인근의 조선인들이 치러야 했던 고통과 절망은 “이색적인 풍경”이라는 말에 지워지고 가려져 당시 일본인에게 전파되었던 것이다.

2) 일제 위생보건의 상징, 소록도를 가다

시모무라는 식민자본에 의한 공업화가 추진되고 있는 북조선의 부전고원·장진강과 함께 소록도를 다카하마에게 추천한다. 시모무라는 1923년 6월 26일, 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기념강연에 초대되어 조선을 방문하는데 부산에 상륙한 이후 한려수도에서 전남 소록도의 나병원을 문안하고 광주를 거쳐 경성으로 갔다. 그리고 경성에서 평양으로 또 함흥으로 왕복, 그 도중 부전(赴戰)고원의 인공호수를 돌아봤다. 귀국 길에 대구에 들러 7월 9일 밤 부산을 떠나왔다. 교토를 나오니 18일, 그 사이에 호텔 숙박 약 6번, 강연 11회를 했다고 하면서 “숨가쁜 여행”¹³⁾이었다고 서술한다. 그는 여행 중에

받은 인상을 와카(和歌)로 적어 기록하였는데 이 여행에서는 「한려수도」 / 「소록도나요양소」 / 「경성 밤의 조선신궁」 / 「경성박문사(博文寺)」 / 「경성호 자리골프장」 / 「함흥정화릉」 / 「성천강」 / 「평양기생학교」 등의 시를 남겼다.

한곳 더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부산에서 목포까지. 조선의 세토(瀬戸) 내해(内海)라고 불리는 이곳을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소록도라는 곳이 나와요. 약 4, 5천 명쯤 되는 한센병 환자가 수용되어 있어요. 세계 제일의 규모로 꼽는데 필리핀에도 많이 수용되어 있다고 하지만 소록도는 실로 엄청나요. 주관적인 시각인 시를 짓는 데는 적당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설을 쓴다면 소재가 얼마간 있을 겁니다.¹⁴⁾

소록도에 1916년 2월 24일 소록도자혜위원이 창설된 후 조선 각 도의 한센인 수용이 시작되었다. 1930년대 후반에 소록도갱생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1939년 확장 공사를 거쳐 최대 6천명까지 수용하게 되었다 한다. 시모무라가 방문한 1923년부터 1929년은 하나이 켄키치(花井善吉)가 제2대 원장으로 있을 시절이다. 하나이 켄키치는 일본인 원장으로서 조선인 한센병환자들의 추앙을 받은 유일한 인물로서 1929년 사거 후 세워진 창덕비의 비문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인 한센병환자의 의료와 생활개선에 힘썼다고 한다.¹⁵⁾ 그러나 소록도자혜위원(소록도갱생원)은 우생학에 기초하여 조선인 한센병자를 격리하여 통치하면서 조선통치에 대한 선정의 이미지를 구현하려는 일제의 선전도구로서 단종대(斷種臺)와 감금실 등을 설치하고 병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곳이다.

일본 한센병정책의 핵심 인물인 병리학자 미쓰다 겐스케(光田健輔)는 일반 대중의 공간에서 환자를 퇴출하고 환자들만의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공공의 선(善)’을 전시(display)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한센병을 ‘감염병’으로 대

13) 下村海南, 『東亜の理想』, 앞의 책, 앞의 쪽.

14) 『조선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하는 좌담회』, 앞의 책, 152쪽.

15) 滝尾英二, 『朝鮮ハンセン病史－日本植民地下の小鹿島』, 未来社, 2001.

중에게 각인시키는 언론활동과 소록도갱생원에 견학자를 적극 초청하여 제국의학에 대한 자부심 곧 황국신민의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¹⁶⁾

시모무라는 소록도자혜의원에 초청되어 견학한 경우로 보인다. 시모무라는 1921년에 대만총독부를 퇴관하고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에 입사하여 전무,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1923년에는 와세대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 바로 이 시절에 소록도에 초청받아 방문한 것이다. 이후 1937년에 다시 방문하여 『조선의 나(癩)를 통해 일본을』¹⁷⁾이라는 글을 발표한다. 시모무라는 미쓰다 겐스케의 기획대로 소록도를 방문하고 일제의 근대의학의 힘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센병에 대해, 정확히는 한센병 환자의 관리와 격리 나아가 퇴치에 힘써야 함을 여러 글에서 논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지, 조선의 차이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한센병에 대한 조야의 관심이다. (중략) 내지의 한센병방지협회는 아마 2백만 원을 모으고자 하였으나 절반도 모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조선에서는 50만 원 정도 모으려고 했는데 2백1십여만 원이 모였다. (중략) 이 기부금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조선인이 많았다.¹⁸⁾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시모무라는 일본보다 많은 한센병 방지 기부금이 걸린 조선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한센병 퇴치에 보다 분발해야 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이 글은 끝맺는다. 한편 시모무라에게 소록도 행보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는데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자.

2. 임진왜란과 한려수도

부산을 출항하여 서해안에 연하여 낙동강 하구를 우현(右舷)으로 보면서부터

16) 서기재, 『한센병을 둘러싼 제국의학의 근대사-일본어 미디어를 통해 본 대중관리 전략』, 『의사학』 57, 2017, 423~424쪽.

17) 下村海南, 『朝鮮の癩から内地を』, 『文芸春秋』, 1937. 9, 21~24쪽. 이 글은 단행본 『동이의 이상(東亜の理想)』(앞의 책)에 다시 실려 간행된다. 본고에서는 이 글을 단행본에서 인용하였다.

18) 下村海南, 『東亜の理想』, 앞의 책, 422쪽.

진해만(鎭海灣)을 오른쪽으로, 거제도(巨濟島)를 왼쪽으로 수없이 섬에서 섬으로 이어진다. 거제도와 통영항이 서로 거리를 좁히는 세토(瀨戶-좁은 통로라는 의미)를 빠져 나가 한산열도가 되고, 남해도를 감싸고 여수항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한려수도라고 부르고 조선 팔승(八勝)의 하나로 꼽는데, 실은 낙동 입구의 서쪽인 가덕도에서부터 목포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틀림없이 조선의 세토 내해(內海)이다.

한려수도는 지금은 경승(景勝)지구이고 과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두 번 조선을 침략한 옛 전장이다. (중략) 우리 수군을 괴롭게 한 조선 아니 동양의 넬슨 제독(Horatio Nelson)¹⁹이라고 해도 좋을 이순신이 분투하고 전사한 옛 전장이다. 가는 곳마다 누각이 있고 문이 있고 비(碑)가 있는데 모두 이순신의 이름을 전하는 것. 생각을 4백 년 전 옛날에 맡기고 이 수도의 관광에 뜻을 두는 것도 또한 일흥(一興)이다.(강조-인용자)

아침 10시에 부산을 나서서 오후 7시 반 정도에 여수항에 도착하였다. 우리가 탄 배는 8시 반이 되어 여수의 사람들과 회담하고 거기에서부터 자동차로 4시간, 순천만에 연하여 흥양(興陽)반도의 돌각(突角)에서 소록도의 건너편 언덕에 닿은 것이 밤 0시 반이었다.²⁰⁾

시모무라는 소록도자혜의원으로 가는 길에 임진왜란 중 이순신을 위시한 조선 수군이 싸웠던 역사적인 현장을 추억한다. 그는 이순신을 “동양의 넬슨 제독”이라 부르며²¹⁾ 임진왜란을 떠올린다. 명석한 두뇌와 혼신의 의지로 조선의 전세(戰勢)를 바꾼 이순신을 떠올리는 한편 그 역사적 현장이 오늘날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400년 전 왜의 침략으로부터 이순신이 조선을 지켜낸 것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 버린 당시의

19) 호레이쇼 넬슨(1758~1805)은 영국의 제독(提督).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전쟁에 종군했고 코르시카 섬 점령, 세인트 빈센트 해전에서도 수훈을 세웠다. 프랑스 함대와 대결하는 중심인물이었고 트라팔가르 해협에서 프랑스-에스파냐 연합 함대를 격멸시켰다. [네이버 지식백과] 호레이쇼 넬슨 [Horatio Nelson] (두산백과)

20) 下村海南, 『東亜の理想』, 앞의 책, 417~419쪽.

21) 이순신과 넬슨의 전술이 누가 더 높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순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조선은 일제 치하의 1937년 현재 속에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빛내고 있다. 이 해의 시모 무라는 귀족원의원에 칙선(勅選)되어 위정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은 상황이었다. 위정자 시모무라는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으로 일본과 조선의 상황을 돌아보고 있다.

전라남도의 외딴 섬, 그 옛날 이순신과 우리 수군이 검극(劍戟)을 보았던 옛 전장의 일각에 이제야 천황의 은혜에 따라 세상에서 불행한 환자들이 자비의 비에 젖고 있다. 소록도에 위문하고 일등국 일본 내지의 한센병의 상황을 돌아보고 감개 무량하다.²²⁾

일제의 정치가로서 시모무라는 소록도까지 가는 여정에서 마주한 임진왜란 패전의 과거를 일본 국내를 비롯하여 조선과 대만에서도 한센병 ‘구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일제의 현재 상황으로 대치, 승화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내재화하여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 옛날 좌절되었던 조선 ‘정복’의 꿈은 이제 ‘불행한’ 조선의 한센병 환자들까지도 ‘구제’하는 오늘에 이르러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모무라는 배와 자동차를 번갈아 타고 장장 10여 시간을 시달려 왔지만 ‘감개무량’함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시모무라는 소록도에서 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날카롭게 관찰하여 기록한다거나 일제의 한센병자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한다거나 하지는 못했다. 다만 일본에서 소록도까지 가는 경로를 자세히 적어 일본인들에게 소록도의 길라잡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제가 원하는 소록도견학기의 하나를 집필하였다. 아울러 일본과 조선 환자의 수, 병원의 규모 정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면서 비슷한 점이 많다고 결론내리면서 다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환자들의 교육정도라고 서술한다. 일본 환자들의 교육정도가 조선 환자들의 교육정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만을 차이점

22) 下村海南, 『東亜の理想』, 앞의 책, 424쪽.

으로 들고 있다. 그러한 학력 차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나 원인 등은 설명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만이 기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는 한편 두 차례에 걸친 소록도견학 후 3년이 흘러 소록도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과 생각을 떠올리며 소설을 쓰는 데에는 무언가 좋은 영감을 주는 곳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1940년 『모던 일본』 조선판 수록 좌담회에서 다카하마에게 소록도에 꼭 가보라고, 작품 창작에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있다.

3. 조선의 골프장에 매료된 일제 관료, 시모무라

1) 조선인과 스포츠

구한말 구미와 일본에서 도입된 우리의 근대스포츠는 외국인선교사, 교사를 통해 학교에서의 운동회와 스포츠단체를 시작으로 일반에서 보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1910년 이후 일제의 무단통치로 인하여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은 일본인에게 장악되었는데 탁구, 테니스, 스키, 럭비 등의 근대스포츠 도입과 각종 경기대회의 개최 또한 일본인이 주도하였다. 1920년에 조선체육회가 설립되어 전국각지에 스포츠 활동이 활발해지다가 조선체육회는 1938년 일본인이 설립한 조선체육협회로 통합되고 학교체육을 군사훈련으로 도모하고 조선의 각종 스포츠 활동을 통제하였다.²³⁾

스포츠계에서 조선 출신들의 위치는 매우 크다. 내지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균형잡힌 신장과 풍부한 지구력은 기술보다 가장 먼저 체력이 필요한 스포츠에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다. 원래 조선, 중국 민족은 선천적으로 손과 발의 섬세한 기예에 능하다. 이 탁월한 기술과 강인한 육체력, 어떠한 어려움에도 꺾이지

23) 손환·서범석, 『일제강점기 한국의 스포츠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한국체육과학회, 2013, 4쪽.

않는 투자를 지닌 육체야말로 스포츠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조선 스포츠는 일본 스포츠계를 대표하고도 남지만 지리적 이유와 그 밖의 사정에 의해 조선 스포츠계는 천부적으로 훌륭한 육체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화려한 역사를 드러내지 못했다. 만일 조선 스포츠계가 내지와 같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일본 대표선수는 조선 출신들로 독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정도로 **조선에는 천재적인 인재가 묻혀 있기 때문에 이 귀중한 자원발굴이야말로 일본 스포츠계가 당면한 급선무라고 단언해도 좋다.**(강조-인용자) 또 그와 동시에 조선 국내에서도 자기 손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지도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²⁴⁾

인용문은 일본 스포츠평론가 우노 쇼지(宇野庄治, 1903~1970)의 글이다. 우노 쇼지는 교토대학 법학부 시절 럭비부에서 활약하였다. 졸업 후 1930년 요미우리신문사에 입사하여 체육부장, 검열부장, 운동부장을 역임하였다. 1948년에는 요미우리자이언트구단 대표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구단 대표를 맡기도 하였다. 그에 따르면 조선인은 일본인에 비하여 월등히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가졌다. 따라서 조선인 선수를 지원하여 육성한다면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앞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1940년에 이미 조선체육협회의 통제에 따라 조선인 스포츠발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총동원체제의 극한시기였던 당시 상황으로서는 더더욱 조선인의 스포츠재능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다. 이런 조선의 상황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글이 또한 시모무라의 골프 소재 글이다.

2) 조선에서 즐기는 골프

시모무라는 1937년 귀족원의원에 칙선(勅選)되었고 동시에 재단법인 대일

24) 우노 쇼지(宇野庄治), 『운동계에서 기쁨을 토하는 조선인들』, 홍선영 외 역,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40 완역 <모던일본> 조선관 1940년』, 어문학사, 2009, 3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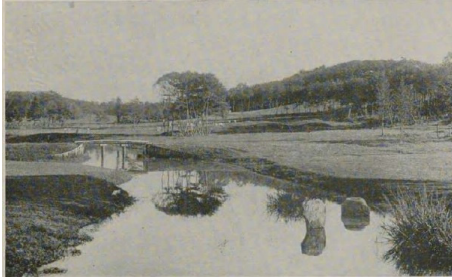
본체육협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그가 귀족원의원이 되자마자 대일본체육협회 회장이 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그의 각별한 골프 사랑을 들 수 있다. 대일본체육협회 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한 기록이 남아 있지만 그 무엇보다 골프만큼 애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대개가 형식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기록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골프에 대한 글은 이와 다르다.

때는 1928년이었다. 내가 클럽을 잡기 시작한 때였다. 동인(同人) 스기무라 소진칸(杉村楚人冠)²⁵과 금강산에서 북조선으로 가는 도중에 여기(원산골프장-인용자)에 들렀다. 점심은 클럽하우스 대용인 찻집에서 환영회를 겸하여 토너먼트가 거행되었다. 회사은행원, 학교선생님, 우편국 과장 등 모든 멤버가 환영회에 참가하였다. 여기에 토지의 상공회의소 회장 왈 아직 클럽을 손에 들지 않은, 아니 이 골프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분들, 실내운동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일행의 환영이 기회가 되어 참례하였다. 한 곳에서 줄지어 경기 견학을 했다. 그날 밤 환영장에서 두세 명의 유력자가 신규가입 지원의 목소리가 들리고 하였다.²⁶⁾

시모무라가 골프클럽을 잡기 시작한 1928년의 원산골프장 경기를 생생히 기억하여 적고 있는 이 글은 1936년에 간행된 『골프백(ゴルフ백)』이라는 장장 52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골프 서적에 실려 있다. 만 8년의 골프 경력과 골프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이 책은 그가 골프를 스포츠로서 즐기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25) 스기무라 소진칸(杉村楚人冠, 1872~1945)은 신문기자, 수필가, 하이쿠시인. 이기리스법률학교(英吉利法律学校, 지금의 추오대학(中央大学)) 졸업 후 고쿠민에가쿠가이(国民英学会)에 입학, 1890년 졸업하여 영어의 소양을 쌓았다. 1903년 도쿄아시히신문(東京朝日新聞, 지금의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에 입사하여 1911년 색인부(索引部)를, 1924년에는 기사심사부(記事審査部)를 일본 최초로 창설하였다. 축쇄관을 발안(發案)하기도 했다. 제도개혁뿐만 아니라 정보매체로서의 신문의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여 『최근신문지학』(最近新聞紙学, 1915), 『신문이야기』(新聞の話, 1929)를 펴냈다. 1910년 추오대학에 신문연구과가 설치되었는데 발안자이기도 하다.

26) 下村海南, 『ゴルフ백』, 目黒書店, 1936, 124쪽.

[자료1] 경성골프코스²⁷⁾

이 책은 골프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이다. 총 4부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골프 철학편(초심자용 골프 레슨 포함), 골프 답사편, 골프 문헌편, 골프 만담편의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여기에 골프 기록, 주요 구락부(俱樂部)의 역사,

구락부 안내를 묶어 부록으로 실었다. 이 중 골프 철학편에서는 조선의 골프장에 관하여, 골프 문헌편에서는 조선의 캐디와 중국의 캐디를 비교대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1928년 조선에 왔을 때 시모무라가 즐겼던 것 중에 하나는 골프장 기행이었던 것 같다. 당시 조선의 골프장은 대구, 경성, 원산, 평양 4곳에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1936년 경성골프장은 현재의 위치에 새롭게 만들어졌고 평양의 골프장은 크게 체면을 고쳤으며, 부산의 골프장은 동래온천에 새롭게 조성되었다면서 조선 골프장의 현황을 소개한다. 그리고 조선의 골프장을 “교통이 편리하고 경치가 빼어난 땅에서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²⁸⁾어서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는다.

당시 조선의 골프장을 이용하는 자는 외국인뿐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일본인의 입장에서 가성비가 뛰어났다 할지라도 조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골프장이 조선에 4군데나 있었다. 그러나 1943년이 되면 경성CC 군자리코스가 일제의 전쟁 수행 용도로 병참 기지화해 식량 증산을 위한 논과 밭으로 전용되어 폐장되면서 한반도에서 골프장은 한 곳도 남아있지 않게 된²⁹⁾ 사실은 식민지 조선 골프장의 아이러니컬한 운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7) 下村海南, 『ゴルフバッグ』, 위의 책, 8쪽.

28) 下村海南, 『ゴルフバッグ』, 위의 책, 121쪽.

29) 『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 용어 산책 26』 ‘포대 그린’은 어떻게 만들어 진 말일까, 『마니아리포트』, 2020. 5. 21.

조선의 캐디

상. 공 찾는 데 열중하는 조선의 캐디

메이여오, 메이여오(沒有沒有, 없다, 없다) 라며 태연한 지나(支那) 캐디

골프의 7개 도구의 가방을 메고 따라 오는 아이를 캐디라고 한다.

공이 깨끗하게 다듬어진 잔디 아래 큰길에만 날아가면 캐디의 일도 편하지만 초학(初學)의 무리는 물론 고참이 되어도 어쨌든 공을 셋길의 초원이나 송림(松林) 등에 날린다. 이럴 때 캐디는 언제나 공 찾기에 고달픈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어디에도 편안한 일은 없다.

조선의 캐디는 날아간 공을 쫓아가 공 옆에 서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린다. 지나(支那)의 캐디는 느릿느릿 주인 뒤를 쫓아와서 한 곳에서 바스락바스락 찾는다. 초원으로 날아간 공을 대충 찾아 찾지 못한다.

“어이, 이제 됐으니까 찾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한다.

조선의 캐디는 더 열심히 계속 찾는다. 그래도 찾지 못한다. 플레이가 끝난 후에도 혼자 일부러 나가서 언제라도 찾아낸다.

지나의 캐디는 “어이, 이제 됐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느릿느릿 돌아온다. “있었어요?” 물으면 메이여오… 없어…라고 대답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한다.

자동차에 올라타고 지나의 캐디는 운무와 같이 둘러싸고, 골프백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다. 이때만은 긴장되어 골프기분과 정반대의 수리장의 기분이 되므로 끔찍하다.³⁰⁾(강조-인용자)

한편 한, 중, 일 세 나라의 골프장 기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한 시모무라는 일본의 캐디는 제외하고 조선과 중국의 캐디에 관하여 일화를 소개하며 비교 대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는 조선 캐디가 티업(tee-up)할 때 “단지 치기 쉬운 곳에 옮겨 놓을 뿐 아니라 그 근방의 풀을 잡아 뽑고 작은 소나무 가지

30) 下村海南, 『ゴルフバッグ』, 위의 책, 232~233쪽.

는 칼로 베어낸다. 치기 힘들어 보이면 근처에 늘어져 있는 소나무 가지를 양손을 써서 어중간하게 만들고, 훨씬 옆으로 끌어당겨” 공을 놓아준다면서 “규칙위반도 이정도 되면 애교”³¹⁾라며 조선 캐디가 자신의 일에 충실함을 넘어 약간 선을 넘는 것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멀리 풀숲에 떨어진 공을 열심히 찾으려고 애쓰는 조선의 캐디를 보면서 시모무라는 조선의 캐디가 세계 최고라며 극찬한다.

반면 중국의 캐디는 “하나도 돈, 둘에도 돈, 셋에도 돈인 지나의 캐디에게는 몹시 정 떨어졌다.”³²⁾고 하면서 풀숲의 공은 찾는 시늉만 하고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면 제품에 끼워서 팔고 있을 정도로 돈만 아는 중국의 캐디는 일본어는커녕 영어도 못하는, “외래문물을 업신여기는, 세계 제일로 나쁜 캐디”로 평가한다. 캐디로서의 임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돈만 밝히는 중국 캐디를 시모무라는 골프장 사용자로서 강하게 비판한다.

시모무라는 일본 호도가야(程ヶ谷)클럽의 캡틴을 이어받아 열심히 골프를 즐겼다. 여러 골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만큼 다양한 골프 에피소드를 간직하고 있다. 그에게는 사사롭고 일상적인 추억에서부터 해운대 골프장에서 지인이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추억³³⁾까지 있다. 더불어 골프와 연관되는 한에서 조선은 그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긍정적인 곳이다.

4. 조선을 기행하고 쓰고 남기다

시모무라는 1921년 대만총독부를 그만둔 이후 간헐적으로 조선을 오가다 귀족원의원, 대일본체육협회 회장이 되기 전 해인 1936년부터 조선을 빈번하게 왕래하였다. 이후 1942년 일본문학보국회 이사,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 좌장을 맡았고 1943년 5월 15일에 사단법인 일본방송협회 회장이 되었으

31) 下村海南, 『ゴルフバッグ』, 위의 책, 234쪽.

32) 위의 책, 같은 곳.

33) 下村海南, 『朝鮮・滿洲・支那』, 第一書房, 1939, 248쪽.

며 1945년 4월 7일 스즈키 간타로(鈴木貫太郎) 내각의 국무대신이 된다.

그의 이력에서 보이듯 시모무라는 위정자로서 일제의 대 조선정책에 부응하고 공업화되어 가는 부전고원과 장진강의 댐과 발전소를 답사하고, 소록도 자혜의원(소록도갱생원)을 견학하고 그 의의를 담은 여러 편의 글을 남겼다. 또한 대일본체육협회 회장으로서는 조선과 만주의 체육 정책에도 관여하였으며, 골프를 즐겨 골프를 매개로 조선에서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다.

시모무라의 이런 글들은 수합되어 여러 권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으며 계 중에는 조선 관련 서적 33권 중 하나로 그의 저서 『수필평론집 조선·만주·지나(隨筆評論集 朝鮮·滿洲·支那)』(第一書房, 1939)³⁴가 포함될 정도로 조선 전문가가 되어 조선과 일본 양국의 일본인들에게 회자되기에 이른다. 아울러 시모무라의 조선 기행은 수차례 일본 내외의 강연을 통하여 많은 일본인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그 만큼 많은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에 관한 일제 말기의 경험은 아주 작은 균열과 모순을 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일제의 조선 지배 정책과 일치하는 것에 국한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험이 패전 후에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하여 이전과 비교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34) 『조선에 관한 서적안내』, 홍선영 외 역,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40 완역 <모던일본> 조선판 1940년』, 어문학사, 2009, 319쪽.

■ 참고문헌

자료

下村海南, 『ゴルフバック』, 目黒書店, 1936.

_____, 『東亜の理想』, 第一書房, 1937.

_____, 『朝鮮・滿洲・支那』, 第一書房, 1939.

_____, 『持久戰時代』, 第一書房, 1940.

시모무라 가이난, 『조선의 여관』, 홍선영 외 역,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40 원역 <모던일본> 조선판 1940년』, 어문학사, 2009.

우노 쇼지(宇野庄治), 『운동계에서 기념을 토하는 조선인들』, 홍선영 외 역,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40 원역 <모던일본> 조선판 1940년』, 어문학사, 2009.

『조선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하는 좌담회』, 홍선영 외 역,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40 원역 <모던일본> 조선판 1940년』, 어문학사, 2009.

단행본

高崎隆治, 『文学のなかの朝鮮人像』, 倉林社, 1982.

滝尾英二, 『朝鮮ハンセン病史 - 日本植民地下の小鹿島』, 未来社, 2001.

서기재, 『조선 여행에 떠도는 제국』, 소명출판, 2011.

논문

서기재, 『한센병을 둘러싼 제국의학의 근대사 - 일본어 미디어를 통해 본 대중관리 전략』, 『의사학』 57, 2017.

손 환 · 서범석, 『일제강점기 한국의 스포츠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한국체육과학회, 2013.

『[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 용어 산책 26] '포대 그린'은 어떻게 만들어진 말일까』, 『마니아리포트』, 2020. 5. 21.

Simomura Kainan and Joseon travel

Yun, Miran*

As a politician, Simomura Kainan(下村海南) responded to the Japanese imperial policy toward Joseon. He visited the industrialized Bujeon Highlands, the Jangjin River Dam, the power plant and Sorokdo Jahye Clinic. And he left several articles containing its significance. Also, as the chairman of the Japanese imperial Sports Association, he was involved in the sports policy of Joseon and Manchuria, and he enjoyed playing golf and recorded his experience in Joseon through golf.

His writings were passed on to many Japanese through many lectures both inside and outside Japan. And there was so much influence. His experience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 regard to Joseon led to very small cracks and contradictions, but to the last he was confined to what was consistent with the Japanese rule of Joseon and gave meaning to it.

Key words : Simomura Kainan(下村海南), Experience of Joseon, Industrialization, Sorokdo, Golf, the Japanese imperial policy toward Joseon, Crack

논문투고일 : 2020년 7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8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8월 25일

* Research Professor of Inha Univ. Center for Korean Studies

